

# 전남, 수도권서 2조5천억 투자협약

(주)한화 글로벌부문 등 5개사 참여...일자리 2125개 기대



28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세계로 뽐내는 대도와 전남을 위해 개최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김영록 지사가 참석자들과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해 전남의 투자 유치 가속화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에 대규모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 수도권 소재 기업과 협회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다.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 수도권 소재 기업과 협회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화 글로벌부문, GS바이오주, ㈜창영, ㈜바르디앤디, ㈜포스코퓨처엠 등 5개 기업과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통해 2125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 글로벌부문은 여수 국가산

단 일원 13만㎡(4만평)에 연간 40만 규모의 집산 공장을 건설하고 바이오·반도체 소재와 탄소중립을 위한 암모니아·수소·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수송)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 GS바이오는 2024년까지 여수 국가산단에 바이오디젤 플랜트 증설을 추진한다.

창영은 영광에 2029년까지 쌀가루떡 제조 관련 공장을 신설하고, 바르디앤디는 2027년까지 호텔&리조트를 건립하며, 포스코퓨처엠은 광양에서 이차전지용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투자협약에 이어 주력사업인 첨단소재,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반도체 등 전남의 역점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강점과 투자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한국전력공사도 분산형 에너지 시대에 대비해 미래형 신기술로 주목받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MG)사업 추진 계획과 에너지밸리 추진 현황과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이날 전남도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전라남도 대도약'에 활력을 더할 투자유치 가속화 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김호 기자

##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기업 수출 페스티벌

광주·전남 70개사 참가...15개국 해외비즈니스센터와 상담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호남지역 수출 희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제2회 광주·전남 기업 수출 페스티벌을 2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테크노파크·전남테크노파크·15개국 해외비즈니스센터 20여 명의 센터장과 바이어·지역 수출희망기업 70개사·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까지 열린다.

페스티벌 첫날인 이날 광주기업인 미나페이는 두바이 바이어와 50만 달러, ㈜찬솔은 남아공 바이어와 50만 달러, ㈜시엔에스컴퍼니는 미국 바이어와 100만 달러, ㈜에니체는 중국 바이어와 150만 달러 등 광

주·전남 기업 8개사가 9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행사기간 내 광주본부세관·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무역협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이 무역 관련 상담부스를 운영, 무역 관련 애로사항과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 세수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길은 수출이다"며 "질실함을 담은 열정으로, 광주시가 기업의 영업사원이 되겠다. 중소기업의 손을 맞잡고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의 길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 '국립의대 유치' 총력 대응...민간유치위 출범

전남도 전담반 회의서 추진현황 점검·추진전략 집중 논의

의료취약지역 전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전담반' 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과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 국립의대 유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유치 전담반 분과별 위원 19명이 참석해 그동안 의대 유치를 위해 추진한 건의·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 논의

되는 상황에 맞춰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 유치 활동 전개 방안 수립에 집중했다.

전담반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을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정부·국회·대한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의·설득 활동을 펼칠기로 했다.

또 지역민들의 의대 유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전남도 의과대학 민간유치위원회'를 7월 출범시키기로 확정했다. /김호 기자

## "주말엔 광주서 풍성한 문화체험 즐기세요"

아트피크닉·예술의거리축제·남도달밤야시장 등 다채

광주시는 함께 나들이하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주말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아트피크닉 ▲예술의거리 축제 ▲남도달밤야시장 ▲광주비엔날레 및 파빌리온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FC 흥경기 관람 등이 있다.

가족 단위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플라마켓을 즐길 수 있는 아트피크닉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 전역에서 열린다. 오는 7월 1일 중외공원에서 아트 스테이지·상상놀이터·아트캠프 등 연령대별 맞춤형 문화체험이 가능하다.

예술인과 시민이 다채로운 예술체험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동예술의거리 축제 아트 공동은 7월 1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 올해

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재미있는 아트공동'이라는 주제로 원데이클래스·플라마켓·야외공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더운 여름에 낭만이 가득한 대인 예술시장 남도달밤야시장을 방문하면 다양한 먹거리와 한평갈러리·대인놀이터·길위의 문화공연·별별상상정원 등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제 14회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양림미술관, 이강미술관 등에서 진행된 9개국 파빌리온 전시는 7월 9일 막을 내린다. 관객 친화적 도슨트 프로젝트 등 새로운 도전 덕분에 관람객이 20만명을 돌파했다.

7월 7-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제 12회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가 열린다. /조선주 기자

## 전남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공론화 속도

두 번째 강연회...무안군민 300명 참석 높은 관심

전남도가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무안군 남악에 소재한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군 공항 이전 바로알기 강연회'를 열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했다.

지난달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강연회엔 전보다 더 많은 무안군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강연자로 나선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는 '무안 국제공항 국내선 통합과 광주 군 공항 전남 이전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 교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전남도, 광주시, 해당 기초자치단체

가 합의와 대응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사전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한 이전 후보지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설득에 전남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결정은 지역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민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객관적 정보 전달 기회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군 공항 이전을 정부기관 이전이나 국방부 주요시설의 유치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군부대는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 이전에 비해 가족 이주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한 지역 교육과 문화공동체 파급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호 기자

## 송정역 주차빌딩, 개장 한달 만에 물난리

1·2·6층 중심 배수관 역류로 빗물 범람

국비 370억여 원을 들여 지어진 광주송정역 주차빌딩이 개장 한 달 만에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겪었다.

주차장 관리 직원들은 양수기를 통해 배수 작업을 진행 중이나 일부 층에 빗물이 가득 들어찬 탓에 완전 복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남부더 내린 폭우로 주차장 1층과 2층, 6층이 침수돼 현재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려운 빗물이 제때 배수되지 않으면서 역류해 1층과 2층, 6층으로 흘러 넘쳤다.

폭우가 내릴 당시 6층에는 차량이 없어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1층과 2층에 주차돼있던 일부 차량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직원들은 양수기를 동원해 이날 오전부터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6층에 들어찬 물의 양이 많고 양수기의 능력이 한정적인 탓에 완전 배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형안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             |   |
|-------------|---|
| 공고광고        |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
| 준공고광고       |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
| 부동산광고       |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
| 정치 및 긴급성 광고 |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
| 안내광고        |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